

부부의 자아존중감과 가족규칙의 정도에 따른 가족의사소통 효율성

박 선 민*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박사과정)

김 태 현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교수)

본 논문은 부부가 인지하는 자아존중감과 가족규칙의 정도를 평가하고 가족의사소통효율성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많은 가족들에게 성공적인 가족생활을 위해 부부가 어떻게 상호작용 해야 하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부로서,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20대~60대 부부를 대상으로 남편 101명, 아내 101명이고, A기업, B기업을 임의 선정하여 수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program을 이용하여 t-검증, 일원분산분석(ANOVA), 중다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등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이 지각한 자아존중감, 가족규칙, 가족의사소통효율성(부부의사소통효율성, 부모-자녀의사소통효율성)의 전반적 실태에서 가족규칙의 정도와 가족의사소통효율성은 남편이 아내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가족규칙, 가족의사소통효율성(부부의사소통효율성·부모-자녀의사소통효율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좀더 높은 수준의 직업일수록, 월소득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고, 가족규칙의 정도는 연령·결혼기간·첫째자녀나이가 많아질수록 성과 성역할 규칙을 높게 인지하고, 결혼기간·첫째자녀나이가 많아질수록 위계 규칙을 높게 인지하며, 연령·교육수준·월소득·결혼기간·자녀수·첫째자녀나이가 많을수록, 직업이 무직·판매생산직·사무직·관리전문직 보다 자영업일수록 감정규칙을 높게 인지하였다. 가족의사소통효율성을 살펴보면 먼저, 부부의사소통효율성은 남편이 아내보다, 월소득이 많을수록 높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고, 부모-자녀의사소통효율성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셋째, 가족의사소통효율성에 대한 영향력 검증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정규칙의 정도를 덜 지각할수록 부부의사소통효율성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감정규칙과 성과 성역할 규칙의 정도를 덜 지각 할수록, 위계규칙의 정도를 더 지각할수록 부모-자녀의사소통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가족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의 중심체계인 부부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가족규칙의 정도를 유연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과 상담이 필요하다.